

광주경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비율 전국서 가장 낮다

지난해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 비율 3.2% 불과 전남은 6.8%...“제도 정착 더더...실효성 높여야”

광주경찰청의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진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조사한 피의자 수 4만285명 중 진술 영상녹화는 1295건이다. 영상 녹화 진행 비율로 따지면 3.2%로 전

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전남경찰청은 피의자 5만 652명의 진술 중 3450건을 영상녹화했다. 영상 녹화 비율은 6.8%로 충남 10.6%, 제주 8.5%에 이어 전국 시·도 경찰청 중 3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진행 비율이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6.0% 등으로 증가했지만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다. 현재 경찰청 ‘영상 녹화 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중수뢰·선거 범죄·강도·마약 등 중요 범죄 관련 피의자 신문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등에 진술 영상을 남겨야 한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희망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서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 조사 과정에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며 “경찰은 향후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선욱기자



가을 하늘 아래 운동회 가을운동회가 열린 28일 오전 대구 동구 아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맑은 가을하늘 아래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

‘학동 붕괴 참사’ 공사 브로커 문흥식 징역형

징역 4년 6개월·추징금 9억 7000만 원 선고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초래한 계약 비위 중심에 선 브로커 문흥식(62)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선배 이모(75)씨와 공모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다윈이앤씨와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홀로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알선 활동에 나서 한솔기업 등 업체 3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7억 원을 챙기거나 하청수주 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조합장과 친분 등을 이용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조합 공사·계약에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재판장은 각종 기록과 증인 등을 토대로 문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장은 “문씨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 점, 공사 수주 비리가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90일 동안 해외로 도주하고 혐의를 부인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남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윈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윈·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씨 등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조직 출신 의혹을 받는 문씨는 2007년 학동 3구역 재개발 공사 철거 업체로 선정해줄겠다고 속여 특정 업체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김재환기자

광주 도심 사행성 PC방서 강도행각 벌인 40대 검거

범행 38시간 만에 대전서 검거...구속영장 신청 방침

광주 시내에 있는 사행성 PC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범행 3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PC방 업주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57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사행성 PC방에서 50대 남성 업주 B씨를 위협, 현금 200여 만 원을 빼앗아 달

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손님을 가장해 PC방에서 머물며 업주 B씨가 홀로 남아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산대 위에 놓인 스프레이 통으로 때릴 듯 시늉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으로 현금을 요구했고, 검거된 B씨는 수중에 있던 현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력 2개 팀을 동원, 전남 장성과 전축 익산·전주 등을 거쳐 A씨를 추적했다. 이후 첩보를 입수,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대전 신탄지역 사행성 열차에서 내리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며 경찰 수사를 따돌리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